



기술로 미래를 여는 기업

한솔페이퍼텍

기술 혁신·친환경 경영...국내 제지산업 선도

40년간 환경 보호 중견 향토기업...지속가능 경영 실천
폐지 등 순환자원 40% 처리...포장재·신소재사업 확장
지역 농산물 소비 캠페인·취약계층 후원 등 사회공헌도

“삶을 보다 풍요롭게 재창조한다는 신념으로 최고급 포장재 전문기업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제지산업은 재활용률이 높고, 조립지에서 지속가능하게 원료를 공급 받으며, 플라스틱 대체재로서 환경적 가치가 높아지는 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국내 제지산업은 세계 8위 수준의 생산 능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친환경 소재 개발과 글로벌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친환경 제지산업이 환경 보호와 산업 혁신을 동시에 추구하는 대표적 친환경 산업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공동체의 동반 성장을 위해 사회 공헌활동 등 지역발전에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중견 향토기업이 있다.

40여년간 오직 제지산업을 선도해 온 역사와 전통의 한솔페이퍼텍이다.

전남 담양군 대전면에 위치한 한솔페이퍼텍은 골판지 전문 생산 기업으로 지난 1983년 설립된 양영제지가 전신이다.

광주·전남지역에서 발생하는 폐지 등 순환자원의 40%를 수거하고 처리하고 있다.

업체는 ‘차별화를 통한 경쟁우위 확보’와 ‘고객과의 지속 성장’을 핵심 사명으로 삼고, 전통적인 제지사업을 넘어 포장재 및 신소재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국내 제지업계 선도업체로 종이 및 목재 기반 소재를 활용한 포장재와 신소재를 개발, 다양한

분야에 적용함으로써 일상생활 속 석유화학 기반 소재를 종이로 대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재활용 가능하고 저탄소 특성을 가진 소재 개발에 집중하며 자원순환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지속가능 경영을 실천 중이다.

지난 2016년 한솔페이퍼텍은 전 세계적인 환경 및 자원 보호 활동 강화와 환경친화적 용지 수요 증가에 맞춰 FSC®CoC 인증을 받았다.

FSC®인증은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확산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 NGO인 산림관리협의회(Forest Stewardship Council®)에서 구축한 시스템이다.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산림훼손 및 지구환경 파괴를 예방하기 위한 대응책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천하는 산림경영자를 인증하고, 그 산림에서 생산된 목재 및 목재 제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라벨을 부착하도록 해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환경친화적인 구매를 촉진하는 제도다.

또 지난 2019년 환경경영체계를 도입·운영하고 있으며, 국제 환경인증시스템인 ISO 14001 인증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처럼 한솔페이퍼텍은 단순히 종이를 만드는 기업이 아니라, 환경을 지키며 종이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술로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있는 것이다.

또 탁월한 경영활동을 통해 기업의 재무구조



한솔페이퍼텍은 국내 제지업계 선도업체로 종이 및 목재 기반 소재를 활용한 포장재와 신소재를 개발, 다양한 분야에 적용함으로써 일상생활 속 석유화학 기반 소재를 종이로 대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재활용 가능하고 저탄소 특성을 가진 소재 개발에 집중하며 자원순환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지속가능 경영을 실천 중이다.

의 건전성을 확보해 건실한 중견기업으로 투자 증대를 통한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발전에 공헌하고 있으며, 지역 공동체의 동반 성장을 위해 사회 공헌활동 등 지역발전에 많은 이바지를 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이 주최하고 기획재정부 등이 후원한 ‘2025 행복더한 사회공헌 캠페인’에서 환경사랑공헌 부문에서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한솔페이퍼텍은 정기적인 지역 정화 활동을 비롯해 ‘1사1하천 가꾸기 캠페인’을 통해 공장 인근 하천, 전통시장, 마을 골목길 등을 대상으로 쓰레기 수거, 불법 투기 방지 캠페인, 하천 정비 활동을 꾸준히 펼치며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힘쓰고 있다.

이 같은 활동은 단순한 일회성 캠페인을 넘

어, 환경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책임 의식을 바탕으로 진행됐다.

한솔페이퍼텍은 지역사회와의 상생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담양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 캠페인을 통해 1만kg(500포)의 지역 쌀을 구매했으며, 담양군과의 고향사랑기부제 협약을 체결해 지역 기부 활성화에 동참했다. 더불어 지역 청소년 지원 사업, 취약계층 후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사업장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겨울철 맞춤형 나눔 활동에 나서거나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와의 소통을 동시에 고려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에 앞장서고 있다.

또 지역 출신자들을 우선 고용하거나 근로자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조성해 창의적 기술인력을 확보했으며, 근로자 자녀에 대해 교육비를 지원하고 최선의 기술력 수준의 향상을 위한 재교육을 지원, ‘일하기 좋은 일터’,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솔페이퍼텍 관계자는 “고객의 신뢰와 만족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언제나 고객의 관점에서 불편함을 먼저 살피고 신속히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 믿고 있다”며 “단순한 제품 공급을 넘어, 고객의 성장을 함께 이끄는 동반자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사회 분사에 남다른 열정과 관심을 갖고, 투철한 도덕의식과 솔선수범하는 공공정신을 보여주고 있는 지역과 동반성장하는 기업이 되겠다”며 “지속적인 기술 혁신과 친환경 경영, 그리고 열정적인 도전정신으로 지역사회와 더 큰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한솔페이퍼텍은 정기적인 지역 정화 활동을 비롯해 ‘1사1하천 가꾸기 캠페인’을 통해 공장 인근 하천, 전통시장, 마을 골목길 등을 대상으로 쓰레기 수거, 불법 투기 방지 캠페인, 하천 정비 활동을 꾸준히 펼치며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힘쓰고 있다.



한솔페이퍼텍은 담양군 등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환경정화, 장학금 지원, 마을가꾸기, 고향사랑기부 등 다양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